

# “이론·실천 두 전공체제로” 불교대발전위

## 종호스님 등 “일방적 학제변경 안될 말”

### 동국대불교대발전위 공청회서 ‘학제개편’ 놓고 격론

동국대 불교대학을 ‘이론불교’와 ‘실천불교’ 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11월 11일 열린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 이하 발전위) 공청회서 발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학과, 인도철학과 교수들의 반발이 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 위원인 조영길 교수(불교대학장)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현행 불교학부의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등 3개과 체제를, 전문연구 인력교육을 위한 ‘이론불교전공(불교사, 역경 등 순수학문중심)’과 대사회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실천불교전공(포교, 복지, 문화 등 실용학문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원도 이론연구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실천불교를 연구하는 불교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위해 일반대학원에는 불교학과, 인도

철학과, 선학과와 현행학과를 유지하지만, 불교대학원은 기존 불교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장래문화학과 등 4개학과에서 불교학과를 폐지하고 포교전법학과와 불교상담심리학과를 신설, 5개학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청회 논쟁자로 나선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은 “불교대학을 대표하는 학장이 ‘학부에서의 선학 전공 폐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학이라는 학문이 학부에서 그렇게 쉽게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고, 한국불교사와 종단적 입장에서 그 정도의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문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교수도 “발표안은 ‘3개 전공의 재통합’이 아니라 선학 전공과 인도철학 전공 폐지를 통한 불교학 전공만의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인도철학과 교수들 전체는 신입생 모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도철학’이 명시되지 않는 안이라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제기되고 추진되든지 분명히 반대할 것”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논란 속에서도 발전위 과외는 별도로 선학과와 인도철학과의 발전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종호 스님은 ‘선사상, 선종사, 선문화, 선전’ 중심의 현 선학과 교과를 ‘선학’과 ‘응용선학’으로 구분하고, 선학 전공자가 졸업 후 ‘자기수행 심화’ 또는 ‘선 지도자’ 양성을 학과의 교육목표로 ‘선학과 교과과정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선학이론, 수행법, 유관학문, 지도방법론 등을 이수할 경우 졸업 후3급(학부), 2급(석사과정), 1급(박사과정)의 ‘선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호성 교수도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지향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과목의 해소를 위해 1,2학년은 불교학부로 3,4학년은 ‘선학’ ‘인도철학’ ‘동아시아 불교학’ ‘불교생태학’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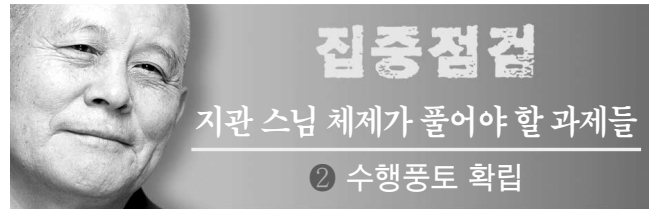
### 정동채 장관 등 지관스님 방문 잇따라

정동채 통일부 장관은 11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 장관은 “불교계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에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며 “큰스님을 모시고 북한 로그그램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청와대 불자회 김병준 회장 등도 각각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 장관은 “스님께서 불교대사전을 집필하시는 것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리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유희주·김강진 기자

# “수행은 종단 발전의 원동력”



총무원장, 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등 선출직에 대한 선거를 치를 때 마다 조계종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선거가 과열되거나 급변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세속의 선거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선거 뿐 아니라 종단내의 각종 갈등구조와 관련된 세상의 ‘주목’은 조계종을 수행과 전법의 발전 방면이 제시되기도 했다.

조계종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수행과 전법의 사명에서 찾아야 한다. 조계종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수행과 전법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풍토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수행 종단 확립’이라는 현실적 화두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 ‘수행’은 시대적 소명

21세기는 ‘수행의 시대’다. 물질만능의 시대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정신회복을 추구하는 ‘수행열풍’이 다시 강하게 불고 있다. 이제 그 열기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이 ‘수행종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은 ‘수행체계’를 갖춰나가기 한다. 수행이 근본적인 힘이 돼야 불교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나눔’ ‘환경보호’ 등 21세기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불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결국 수행풍토가 갖춰진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다.

1990년대 이후 참선 열풍 간경 등 전통수행법 이외 위빠사나 등 새로운 수행법들이 보급되면서 ‘수행법 난립’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단 수행체계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면 한국 불교의 전통적 수행들이 제3수행법들에게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행지침서와 수행을 가르칠 지도자의 부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재가자들이 기초적인 수행에서 간단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정치집단’으로 보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계종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중요한 사이다.

조계종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수행과 전법의 사명에서 찾아야 한다. 조계종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수행과 전법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풍토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수행 종단 확립’이라는 현실적 화두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 ‘수행’은 시대적 소명

21세기는 ‘수행의 시대’다. 물질만능의 시대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정신회복을 추구하는 ‘수행열풍’이 다시 강하게 불고 있다. 이제 그 열기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이 ‘수행종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은 ‘수행체계’를 갖춰나가기 한다. 수행이 근본적인 힘이 돼야 불교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나눔’ ‘환경보호’ 등 21세기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불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결국 수행풍토가 갖춰진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다.

1990년대 이후 참선 열풍 간경 등 전통수행법 이외 위빠사나 등 새로운 수행법들이 보급되면서 ‘수행법 난립’이 새로운 문제로

### 지침서·지도자육성·공각확보 시급 공의모아 탄탄한 로드맵 먼저 그려야

“수행승가가 배움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기본생활의 계율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킨다면 그 힘은 한국불교의 자신감과 자긍심이 될 것이며, 출가자로서 이 사회와 대중들에게 사표가 되는 근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첫 번째 공약에서 ‘수행중풍 진작’을 내세우고 종단 수행 체계의 정립과 선사상 연구원 설립 및 학술대회 개최를 약속

했다. 또한 수행중풍 진작은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수행중풍을 담은 ‘로드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수행중풍을 개발하는 인력양성에도 신경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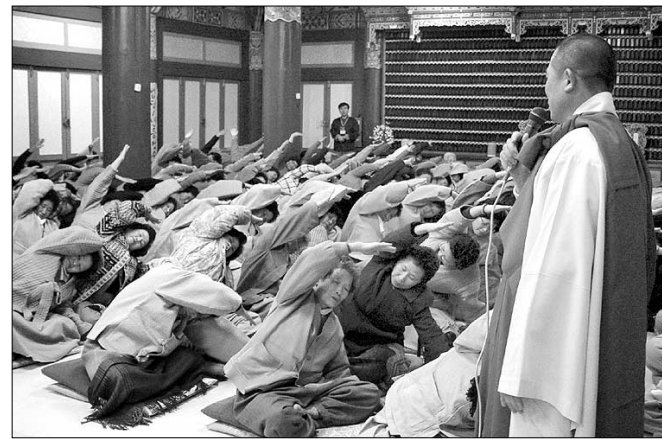
그동안 수행분위기를 해친 대표적인 이유는 종단불안정이었다. 종단회합과 인정을 달성하고 불사 위주, 이벤트 위주로 흐르는 종단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지관 스님 체제의 몫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은 “수행종단을 만들기에 앞서 조계종이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의원, 각 사찰 주지를 맡은 스님들에게 일정기간 안거나 집중 연수교육을 하도록 하는 ‘순환수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당선기자회견에서 대중의 수행 욕구를 종단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스님은 “내면적인 분야인 수행이라든지 정신적인 것을 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외형적인 불사를 줄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명상 분야 등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선 직후 조계종 원로회의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륜과 원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중풍을 진작하고 승가의 위와 실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정신을 향도하고 도덕과 가치관을 이끌어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행중풍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강유신 기자



지난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수행열기의 뜨거움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법회 직후 진행된 실천시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재가자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리 위주 교육을 넘어서서 불교의 참맛을 느끼는 수행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재가자들이 공부할 전문수행센터 건립, 수행전문 지도자 육성, 재가자용 수행지침서 발간 등이 이뤄져야 한다.

포교원 관계자는 “재정적 뒷받침과 수행 중책을 입안할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수행풍토 진작은 어려운 일”이라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안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

지관 스님은 공약을 통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수행 승가는 성스럽게 지켜져야 할 미래사회의 소중한 대한

###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 동안거논강

#### 중앙신도회 23일부터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간화선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조계사 극락전에서 11월 23일부터 11차례에 걸쳐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을 주제로 한 재가자 동안거 논강을 개최한다.

봉화 출사사 선원장 무어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되는 이번 논강에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진명, 신도국장 원철,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서 간화선과 금강경

의 핵심 가르침을 전해줄 예정이다.

또 논강 중간과 회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각하사 선덕 고우 스님이 각각 ‘조계종의 간화선과 소의경전 금강경’,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을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내년 2월 25-26일에는 출사사에서 회향수련회가 이어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권오국 교육팀장은 “종단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간화선풍 확립작업에 동참하고 재가자들이 실참실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재가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02)733-7277

유희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소셜 마하문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모집**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I.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	전공	취득학위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학 석·박사
	명상학	명상학 석·박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상담학 석·박사
	자이초월상담학	
	요기치료학	

**II. 모집인원**

1. 석사과정(4학기): 00명, 연구과정: 0명  
 2. 박사과정(4학기): 0명

**III.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IV.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2005. 11. 14(월)~11. 24(목)  
 장소: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2. 전형일시: 2005. 11. 26(목) 10:00  
 3. 전형방법: 면접 및 구술고사

**V. 제출서류**

1. 석사과정  
 1) 입학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 박사과정  
 1) 입학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5) 연구계획서  
 6) 석사학위 논문개요  
 7) 연구실적 및 전공 관련 활동사항  
 8) 전공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

**VI. 전형료 50,000원**

**VII. 특전**

1.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서울대, 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철학과 연계 교육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02)890-2800 (내) 02)890-2811-2  
 (우)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남글당) 회원 모집**

-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 믿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보문중·고등학교,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주지: 전덕해스님)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 시설이 뛰어납니다.(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 수익금을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합니다.
-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1호선(판악역) 도보 10분거리
-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 ◆ 좌절용 우백호가 분명한 명당입니다.
- ◆ 새로 단장한 안양유원지에서 가족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031) 471-3322, (02) 534-4444  
 (우) 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324-10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수익용기부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